

서사 간 관계 중심의 설화 이해 교육 연구

- <창세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연오랑세오녀>를 중심으로 -

황 윤 정*

목 차

1. 들어가며
2. 설화 이해의 한 방법: 대립 설화와 매개 설화
3. 설화 이해를 위한 설화 간 대립과 매개 관계의 설정
4. 설화 간 관계 설정에 의한 교육의 실제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상이한 설화의 공통된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설화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설화에 대한 이해를 꾀하는 방식의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설화 간 대립되는 관계에 있는 설화를 일컫는 ‘대립 설화’와, 대립되는 설화 사이에 놓일 수 있는 ‘매개 설화’의 개념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정립된 개념을 국내 설화에 적용하여,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성’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창세가>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대립적 관계의 설화로, <연오랑세오녀>를 앞선 두 설화 사이에 놓여 있는 매개 설화로 잠정적인 가설을 수립하고 분석하였다. 살펴본 바, 이동 방향과 방식, 인간 고유의 특성을 서술하는 방식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창세가>와 <해와 달>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아 읽을 수 있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오랑세오녀>는 이 두 서사 사이에 위치하여 읽을 때 보다 풍요로운 의미를 읽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서사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설화를 읽는 방법으로는 탐구

* 한국과학기술원(KAIST), 대우교수.

학습을 제안하였다. 설화를 조망하고 견주어 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는 눈’을 기를 수 있으며, 설화에 대한 자발적 접근 및 의미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연구는 설화 교육의 범위와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또한 국내의 설화로 서사의 체계를 그리는 시발적 지점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논의의 의의가 있다.

❊ **핵심어** : 서사 간 관계, 대립 설화, 매개 설화, 탐구학습, 문학교육, 설화 이해

1. 들어가며

본고는 다음과 같은 논의에서 출발한다.

창세신화소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창세신화가 아닌 다른 신화나 자료에 어떻게 변형되었는가 찾아야 한다. 예컨대 창세신화의 천지개벽 신화소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자료로 변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천지개벽 신화소는 구체적으로 무늬가 등장해서 주체의 설정에 의한 것도 있고 중국의 음양오행 내지 십간십이지의 사상에 의해서 서술되는 것도 있다. 이러한 양상의 정도만 창세신화의 천지개벽신화소를 파악해서는 본질에 이를 수 없다. 어차피 창세신화나 신화의 사고는 논리적 장치를 수반하기 때문에 논리적 조작이 가능한 대립항을 설정해서 파악해야 자료의 전체 군집이 파악된다. 예컨대 천지개벽의 신화소는 천지의 종말이라는 논리적 대립항을 상정하게 한다. 하늘과 땅이 열려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으니 이 세상의 종말을 하늘과 땅이 서로 붙어서 마감될 수 있다.¹⁾

김현선은 신화 연구의 핵심은 자료 전체의 군집(群集)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드러난 하나의 자료만으로는 그와 같은 연구를

1)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29면.

이루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로부터 논리적 조작을 두어 대립적인 지점을 상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다. 예컨대 <창세가>와 같이 미륵이 하늘과 땅을 열어 천지를 개벽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 반대로 하늘과 땅이 붙어 멸망하는 이야기가 논리적 대립항으로서 존재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하나의 군집이나 유형으로 바라보지 않아 왔던 설화 간의 관계를 따지고, 더 구체적으로는 그 관계의 성격을 특정하고 그것을 하나의 설화 군집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곧 하나의 자료로 만든 미처 이해하기 어려웠던 전체 자료의 모양새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와 같은 논의가 갖는 의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본고는 세계의 창조와 같은 하나의 주제, 혹은 공통되는 서사적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설화를 나란히 한 뒤, 설화 간의 구체적 관련성 및 차이에 주목하는 것으로 설화에 대한 이해를 피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하나의 주제나, 공통되는 서사적 요소를 중심으로 설화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동일한 설화 유형에 속하는 각편들을 비교하는 것과는 차별성을 갖는다. 이전까지는 뚜렷한 관련을 갖는다고 할 수 없었던 설화들을 한데 모아 공통점을 발견하고, 그 공통점으로부터 설화 각각이 갖는 서사적 위치를 탐색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²⁾ 설화(說話)는 입에서 입으로

2) ‘설화형(說話型, tale type)’은 다른 설화와 판별이 되는 독립적인 구조와 구성과 내용이 있는 설화의 최고(最高) 단위이며 설화군(說話群, tale cycle)은 유형보다 큰 단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여러 다른 설화형 중에 주요 등장인물이 공통되고, 내용상의 경향에 있어서도 일치되는 설화형의 묶음을 일컫는다. 여기에 최래옥이 제안한 ‘설화계(系)’의 개념을 더할 수 있다. 이는 설화형 간 내용과 구조가 비슷하여 ‘설화형의 묶음’에 대하여 말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설화형 상위의 단위를 일컫는다. 어떠한 설화형과 구조와 내용이 유사하지만 같은 설화형 안에 포함시킬 수 없고, 그렇다고 개별 설화로 떼어놓을 수 없는 “형제격(兄弟格)의 설화”나, 본래 같은 조상 설화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 “일가격(一家格)의 설화”를 포괄하여 지칭할 수 있는 단위이다. ‘설화군(tale cycle)’과도 같지만, “일가격(一家格)의 설화”의 경우, 통시적인 전승상의 변이로 기인하였기에 설화군으로 묶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설화군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발생하는데, 개념의 확대로 인해 근원이 같지만 다른 유형으로 변이된 상당수의 설화들을 묶어서 논의할 수 있게 된다. 광

전해지는 이야기로서, 그와 같은 향유의 특성에 의해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지만 어떠한 공통적인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바보’라는 캐릭터가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변신’과 같은 사건을 신화에서도 활용하고, 민담에서도 활용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와 같이 설화에서 상이한 이야기 간 공유되는 부분은 그 이야기의 전승력을 강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에 의해 이야기가 기억되고, 또다시 이야기되며, 새로운 서사적 전개의 계기를 맞이하기도 한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간 공통점을 중심으로 여러 설화의 관계를 설정하여 설화를 이해하는 작업은 ‘서사지도(敍事地圖)’를 그리는 것과 같이, 설화 간의 상호 관련이 한 눈에 드러날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것³⁾과 유사하다. 설화에 대한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작품으로서의 이해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위치에서 설화 간의 관계를 조망하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해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습자는 설화군 내 설화들의 관계망(關係網)을 그림으로써 자신이 주목한 설화가 설화군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설화군 내의 다른 설화의 내용을 짐작하거나 예상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통해 또 다른 설화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할 수 있다.⁴⁾

이와 같이 이야기 간의 관계에 의해 설화를 이해하는 연구는 황윤정⁵⁾

의 설화군으로서 설화계라 지칭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설화 간의 관계는 일가격이나 형제적 설화와 유사하면서도, 조상 설화의 일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다 더 느슨한 형태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83, 3면.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그 변이와 분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19면.

3)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9면.

4) 정운채, 『<여우구슬>과 <지네각시> 주변의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27~362면 참고.

5) 황윤정, 『신화소 중심의 설화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에 의해 진행된 바 있다. 원형이 되는 신화로 <창세가>를 설정한 뒤, 그로부터 몇 가지 신화소를 추출하여 이 신화소들과 유사한 성격으로서의 관계를 갖는 설화들을 배열한 뒤, 견주어 이해하는 방식을 통해 설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논의를 이루었다. 설화는 민간의 철학이며 논리의 도구로, 관계에 입각하여 바라볼 때에 인간의 삶이 가지고 있는 모순이 해결되는 ‘논리적 사유 도구’로서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관계에 주목하여 살필 때에 설화의 수준 높은 이해 및 교육 체제로서의 고급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같이 설화 간 관계에 의한 설화 이해의 가능성과 교육적 의의를 인정하되, 이야기 간 유사한 관계를 갖는 것보다는, 김현선의 논의와 같이 대립적이거나 독특한 성격의 관계를 갖는 이야기들을 탐색하고 견주어 이해하는 방식을 적용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서사 간 관계를 고려하며 설화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 방대한 규모의 연구를 진행한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를 고찰함으로써 ‘대립 설화’와 ‘매개 설화’의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정립된 개념에 따라 국내 설화에의 적용 가능성을 따져보는 차원에서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성’이라는 소재를 중심으로 하여 <창세가>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를 대립적 관계의 설화로, <연오랑세오녀>를 매개 설화의 위치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설화 간 상이한 관계를 활용하여 이해를 증진하는 학습은 ‘탐구 학습’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설화 이해의 한 방법: 대립 설화와 매개 설화

서사 간 관계를 고려하며 설화를 읽는 방식에 관한 논의는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 Strauss, 1908~2009)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는 북미 인디언들의 813가지의 신화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형과 변형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⁶⁾ 이러한 연구의 기본적인 전제는 신화는 한 신화에서 또 다른 신화로 변형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변형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계열과 특성을 형성하며 인근의 다른 이야기들과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간다. 이에 한 계열에 속하는 신화는 다른 계열에 속하는 신화의 주제를 변형된 형태로 담고 있기도 하다. 그러한 까닭에 여러 신화를 관련지어 읽을 때 보다 분명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⁷⁾ 레비스트로스는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세 부족의 신화를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표로 나타내었다.

〈표 1〉 레비스트로스의 대립 설화, 매개 설화 분석

대립 관계	㉠ 커싱(주니족)	㉡ 파슨스(푸에블로족)	㉢ 스티븐슨(지아족)
신 / 인간 ⁸⁾	-	+	+
	초반부	중반부	후반부
식물의 줄기 / 동물의 힘줄 ⁹⁾	-	-	+

제시된 바와 같이, 레비스트로스는 세 부족이 유사한 서사를 공유하고

6) B. Wiseman, *Introducing Lévi-Strauss*, 박지숙 역, 『레비스트로스』, 김영사, 2008, 136~137면.

7) 위의 책, 144~145면.

8) ‘신과 인간’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우호적인가, 호전적인가에 관한 것이다.

9) ‘식물과 동물’은 각 부족이 사용한 활의 줄이 식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 동물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의 여부이다.

있고, 그 서사 내에는 ‘신과 인간’, ‘식물과 동물’이라는 두 가지 대립적 자질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기준으로 세 부족의 신화를 분석한 결과, ㉠과 ㉡의 이야기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의 커싱 판본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으며, 동물의 힘줄을 사용한 활을 쓰는 것에 비해, ㉡의 스티븐슨 판본은 신과 인간의 관계가 비교적 우호적이며 식물의 줄기에서 비롯된 섬유질로 만들어진 활을 사용하였다. 즉, ㉠의 커싱 판본과 ㉡의 스티븐슨 판본은 동일한 이야기의 요소를 갖되, 그 요소들의 의미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여기서 표의 중앙에 배치된 ㉢의 파슨스 판본은 ㉠과 ㉡의 판본 가운데서 서로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신화와 하였다. 신과 인간의 관계는 우호적인 반면, 동물로부터 기인한 활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과 ㉡의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렇게 세 이야기를 두루 조회할 때, 세 신화는 하나의 신화로부터 변형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변형된 이야기들 간 서사적 대립¹⁰⁾과 매개의 관계를 설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커싱이 수집한 주니족의 신화 ㉠에서는 이야기의 초반부에 자비로운 구원자가 형상화되지만, 스티븐슨이 수집한 지아족의 신화 ㉡에서는 마지막 대목에 가서야 신이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장면이 나타난다. 그리고 파슨스가 수집한 푸에블로족의 신화 ㉢에서는 구원자의 인간에 대한 행위가 모호한 방식으로 서사의 중간 부분에 나타난다는 것이다.¹¹⁾ 이렇듯 레비스트로스는 신의 자비함과

10) 서사 간 대립의 관계는 서사 내 대립 관계와는 다르다. 전자는 여러 서사들 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후자는 앨런 던데스(Alan Dundes, 1934~2005)의 논의와 같은 것들이 있듯, 서사, 특히 설화 안에서 대립적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커싱판본과 스티븐슨판본의 대립은 서사 간 대립이라 할 수 있지만, 이들 부족이 공유하고 있는 서사 안에서 신과 인간의 대립이나 동물과 식물의 대립이 나타난다고 말하는 것은 서사 내 대립적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 Dundes, “Structural Typology in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진경환 역, 『북미 인디언 민담의 구조적 유형학』, 『한성어문학』 1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8, 173~194면.

11) C. Levi-Strauss, “La structure des mythes”, *Anthropologie structurale*, 김진욱 역, 『신화의

포악함의 간극 및 그러한 성격이 형상화된 서사적 배치의 상이함을 들어, 푸에블로족의 신화가 주니족과 지이족 신화의 매개 신화라는 것을 입증하였고 결과적으로 주니족과 지이족의 신화는 푸에블로족의 신화에 의해 의미 관계의 양쪽 끝에 배치되어 서로 대립된 관계로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¹²⁾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레비스트로스의 논의를 수용하여 국내의 설화에 적용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신화 외의 더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에 레비스트로스의 논의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연구 대상을 설화로 확장하고자 한다.¹³⁾ 국내의 설화에서 상호 대립과 매개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설화가 있는지 탐색하고, 견주어 조회하는 과정을 통해 어떠한 의미가 도출될 수 있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은 설화 간 관계에 대해 논의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연구 대상으로서의 적절성을 확보하되, 레비스트로스의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재분석하는 것으로 설화 간 관계와 의미의 망을 보다 견고하게 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김쌍돌이 구연 <창세가>, 민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삼국유사 소재의 <연오랑세오녀>이다. 이 가운데, <창세가>는 대립 관계를 이루는 양 설화 가운데 한 쪽의 기준점이 되는 설화로 설정하였다. 설화 간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출발점이나 가능한 원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 설화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의 최초(最初)의 순간과 관련한 인간의 상상이 집약되어 서사적으로 구성된 결과물인 ‘창세신화(創世神話)’가 이러한 위치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창세

구조], 『구조인류학』, 종로서적, 1987, 211면.

- 12) C. Levi-Strauss, *Mythologiques*, 임봉길 역, 『신화학』 1-2, 한길사, 2006, 64~65면.
 13) 이야기의 변형은 신화 간 뿐만 아니라, 신화가 간직하고 있는 구조적 측면이 다소 약화된 상태로 전설, 민담 등 다양한 갈래로의 전개가 가능하다고 본다. 신화가 대립 구조, 매개항, 원형적 의미를 갖추고 있는 의미 구조라고 할 때 이러한 구성 요소들이 어떠한 변이를 일으켜 약화나 강화를 보이는 과정에서 신화가 아닌 다른 갈래로의 변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황윤정, 앞의 글, 2017.

가>는 북부 지역의 여러 창세신화 가운데 채록 시기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창세신화로서의 온전한 면모를 그대로 지니고 있기에¹⁴⁾ 비교적 원형적인 모습을 갖춘 설화로 설정하기에 적절하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¹⁵⁾의 선정은 서대석 및 기존의 연구에 근거를 둔다. 서대석은 <해와 달>의 민담으로서의 특성을 <창세가> 중 인간 창조의 부분과 관련하여 해석하였다. <창세가>는 천상에서 지상으로 하강한 인류의 기원에 대해 말하는 반면, <해와 달>의 경우 지상의 인간이 하늘로 상승하여 일월이 된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대칭¹⁶⁾이 드러난다고 밝힌 바 있다.¹⁷⁾ <연오랑세오녀>는 본고에서 새롭게 살피고자 하는 설화로, <창세가>, <해와 달>과 서사적인 공통점을 공유하면서도 서사 간 관계의 고유성이 두드러지는 설화로 보아 연구 대상으로 두었다.

본고에서는 언급한 설화에서 공통적인 대목을 구체화하는 것에서부터 연구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그러나 설화들이 공통된 지점을 갖는다고 하여 모두 동일한, 혹은 선형적인 관계를 말할 수 있는 설화인 것은 아니다. 귀속된 갈래나 서사의 규모 및 전개, 등장 인물의 특성 등 모두 상이한 설화군(說話群, tale cycle)에 속하는 이야기들이라 할 수 있다.

상이한 설화 간의 공통점에 대한 논의 후, 이를 중심으로 설화 간 대립 관계와 매개 관계에 대해 논의하여 최종적으로 연구 대상이 되는 설화 간의 의미 관계를 그려보고자 한다.

다음은 연구 대상의 목록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
- 14) 박종성, 앞의 책, 1999, 17~19면.
 15) 이하 <해와 달>.
 16) 대칭은 사물들이 서로 동일한 모습으로 마주보며 짝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주로 도형이나 미술에서 좌우의 거리나 균형을 보아 활용되는 표현이다. 대립은 의견이나 처지, 또는 속성 등이 서로 맞서거나 반대됨을 의미한다. 어떠한 것이 동일하게 맞선 모양새에 대하여 그것이 사물일 경우, 대칭한다 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의견과 같이 가치관이 투영된 경우 대립된다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17) 서대석, 『한국 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1989, 5~26면.

〈표 2〉 연구 대상의 목록

표제어	자료 유형	제목	구연자	채록 시기	채록자	채록지
<창세가>	서사 무가	창세가	김쌍돌이	1923년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¹⁸⁾	민담	해와 달	오화수 (언양)	1911년	정인섭	『한국의 설화』
		해와 달이 된 남매	박태위 (당진군)	1941년	임석재	『한국구전설화』 6
		조선의 일월 전설	-	1947년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연오랑 세오녀> ¹⁹⁾	문헌 설화	연오랑 세오녀	-	-	일연	『삼국유사』

3. 설화 이해를 위한 설화 간 대립과 매개 관계의 설정

3.1. 서사 간 공통적 요소의 발견

<창세가>와 <해와 달>, <연오랑세오녀>는 공통적으로 인간 남녀와 일월(日月)의 관련성을 말한다. 먼저 김쌍돌이 구연의 <창세가>를 살펴보

18) <해와 달>에서 일월과 인간남녀의 관련성은 그 결말부에서 밀도 있게 드러난다고 판단하는 바, ‘남매의 일월화’라는 결말을 갖춘 여러 각편들 가운데 <해와 달>의 전형적 줄거리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된 설화를 선정하였다. 또한 창세신화나 문헌 설화인 다른 연구대상에 비할 때의 자료적 무게 및 전승 자료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여러 각편을 선정하였다.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71~215면.

19) 서거정의 『필원잡기』에 <영오세오부처>, 이유원의 『임하일기』에 <영일현의 이름>으로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와 공통된 것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면, 인류 최초의 인간이 일월로부터 기인하였음을 말한다.

옛날 옛時節에, / 彌勒님이 한쪽 손에 銀쟁반 들고, / 한쪽 손에 金쟁반 들고,
/한을에 祝詞하니, 한을에서 벌기(벌레) 썩러져, /金쟁반에도 다섯이오 /銀쟁반
에도 다섯이라. 그 벌기 질이와서(길러서),/ 金벌기는 사나회 되고, / 銀벌기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 銀벌기 金벌기 자리와서(자라서),/ 夫婦로 마련하여, / 世上
사람이 나였서라.²⁰⁾

인용문에서 보이듯, 창조신인 미륵이 양손에 은쟁반과 금쟁반을 각각 들고 하늘에 인간을 기원하였다. 이윽고 하늘로부터 금벌레와 은벌레가 각각 다섯 마리씩 하강하여 이것이 인간 남녀로 성장한다. 나아가 이들이 부부로 맺어지고, 곧 인류의 시작이 된다. 서대석은 미륵의 금쟁반과 은쟁반이 각각 달의 정기와 태양의 정기를 의미한다고 하였으며,²¹⁾ 박종성 또한 금쟁반과 은쟁반이 일월을 의미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무속 의례 등에서 중시되던 명도(명두, 明斗)에 흔히 일월성신을 새기는데, 이러한 공통점을 볼 때 금쟁반과 은쟁반의 상징적 의미는 해와 달이 된다는 것이다.²²⁾ 여기서 전명수 구연의 <창세가>를 살펴보면, “수미산에 가서/뚝쟁반에 달을 내고/ 금쟁반에 해를 내어”라고 하여, 쟁반과 일월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제시한 자료와 논의들을 종합할 때에 금쟁반과 은쟁반은 일월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쟁반과 은쟁반에 하강한 벌레들은 곧 해벌레와 달벌레이거나, 해와 달의 정기로 일컬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벌레와 달벌레,²³⁾ 혹은 일월의 정기(精氣)²⁴⁾가 장차 인간 남녀가

20) <창세가> 원문은 김헌선을 참고하였다.

김헌선, 앞의 책, 1994, 230~235면.

21) 서대석, 『한국 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세계관적 대칭 위상의 검토』,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1989, 21면.

22)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93면.

23) 박종성, 위의 책, 92면.

되니, <창세기>에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성이 형상화되어 있음을 말할 수 있다.

<해와 달> 또한 인간 남녀가 하늘의 해와 달이 된다고 하는 결말로, 인간 남녀와 일월의 관련성을 드러낸다.

- ㉠ 정인섭- 그들은 어렵지 않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다.(중략)두 아이는 천국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며 어느 날 천국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든 여기 앉아서 빈둥거리며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무를 주기로 결정했다. 소년은 태양이 되어 인간 세계에 빛을 보내고, 소녀는 달이 되어 밤을 빛나게 하라.” 소녀는 대답하되, “왕이시여, 저는 밤과 친숙하지 않습니다. 저는 달이 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대신 그녀를 태양으로 만들었고 그녀의 오빠는 달이 되게 하였다.
- ㉡ 임석재- 하늘스 새 동아줄과 새 삼태기가 내리와스 오래비와 누이동생은 그곳을 타구 하늘로 올라갔다. (중략) 아이들은 하늘에 올라가스 오래비는 해가 되고 누이동생은 달이 됐다. 그르디 달이 된 누이동생은 밤질을 땡기기가 무습다 함스 낮에 다니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스 오래비는 밤에 땡기기로 하고 달이 되고 누이는 낮에 땡기게 해가 되게 했다.
- ㉢ 손진태- 아이들은 급해서 “하느님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려거든 새 동아줄을 내려 보내고 죽이시려거든 썩은 줄을 내려 주시오.” 하였다. 새줄이 내려왔다. 아이 형제는 그것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중략) 하느님은 두 형제를 불러다 놓고 “여기는 놀고 먹지는 못하는 곳이다. 형은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되거라.” 명령하였다. 수일 간 직분을 하다가 누이는 형에게 말하였다. “밤에 혼자 다닐라니 무서워서 안되겠습니다. 나하고 바꿉시다.” 형은 그것을 허락하였다.

㉠의 각편에서는 오누이가 천국에 다다르고, 천국의 왕은 두 아이에게 해와 달이 되기를 명한다. 이에 아이들은 일월이 되어 세상을 빛내기에 이른다. ㉡의 각편에서도 하늘의 응답에 의해 남매의 땅에서 하늘로의 이동

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의 해와 달이 된다. ㉔의 각편에서 또한 아이들은 하느님을 찾아 자신들의 목숨을 요청한다. 하느님이 이에 응답하였고, 아이들은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해가 되고 달이 된다. 이렇듯, 살펴본 세 각편에서는 공통적으로 남매는 지상의 위협을 피하여 하늘에 이르기를 원했고, 하늘에서는 일월이 되어 살아간다는 내용이 드러나 있다. <해와 달> 또한 인간 남녀와 일월이 관련되어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오랑세오녀>에서도 인간 남녀와 일월의 관련성이 언급된다.

(전략) 이때 신라에서는 해와 달이 빛이 없어지니, 일관이 말했다. “해와 달의 정기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지금 일본으로 가버린 때문에 이런 괴변이 일어났습니다.” 왕은 사자를 일본에 보내어 두 사람을 찾았다. (후략)²⁵⁾

신라의 땅에서 연오와 세오 부부가 사라지자 일월이 빛을 잃었다. 이윽고 이와 같은 변고의 까닭이 연오랑과 세오녀가 일월의 정기인 까닭으로 밝혀진다. 평범한 인간 남녀와 일월이 긴밀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연오랑(延鳥郎)과 세오녀(細鳥女)가 일월과 관련된 인물임은 그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데, 해에 ‘까마귀(烏)’가 있다는 믿음에 따라 까마귀가 해를 상징한다고 보면, ‘연오’는 ‘해맞이’의 뜻이 되고²⁶⁾ ‘세오’는 ‘태양과 연관된 성스러운 비단’을 의미하게 된다. 즉, ‘연오랑’과 ‘세오녀’는 이름과 그 정체가 모두 일월과 관련을 갖는 것이다.

더불어, <연오랑세오녀>에서 남편을 따라 세오가 이동하자 해와 달이 곧 빛을 잃는 장면이나, 세오의 비단을 통해 해와 달이 빛을 회복하는 장면을 통해 일월의 빛을 주관하는 일에 세오녀가 더 강력하게 관련되어 있

25)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 1, 도서출판 솔, 2002, 129면.

26)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2004, 21면.

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창세가>에서 보였던 ‘태양-여성’, ‘달-남성’의 상징이 <해와 달>이나 <연오랑세오녀>에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서대석은 <창세가>에서 금벌레를 달의 상징으로, 은벌레를 해의 상징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남자-달’, ‘여자-해’라는 해석의 도식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반대되기에 주목할만 하다. 여기서 <해와 달>을 다시 살펴보면, 하늘에 올라 각자의 자리를 바꾼 뒤 최종적으로 맞게 되는 남매의 직분이 ‘남자-달’, ‘여자-해’로, 서대석의 <창세가> 해석과 일치되는 도식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이지영 또한 남매 일월 삼화가 포함되어 있는 <해와 달>의 각편들을 조사한 결과 해와 달의 역할을 바꿀 때 항상 ‘남자-달’, ‘여자-해’의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남성-달’/ ‘여성-해’의 관념이 이 설화의 중심 요소임을 알 수 있다²⁷⁾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다면, ‘금벌레-달의 정기’, ‘은벌레-해의 정기’라는 분석이 관념의 원형일 가능성이 커진다.

최초의 태양신은 여신으로 상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 신화의 경우 태양신의 남성적 성격이 두드러지나 이집트나 페르시아 신화 속에서도 태양은 여신이며, ‘에벤키족’이나 ‘오로첸족’의 <태양아가씨>, ‘만주족’의 <순안뽀마마>도 그러하고, 몽고의 일월신은 모두 여성으로 나타난다.²⁸⁾ 그렇다면 <창세가>에서 드러난 ‘태양-여성’의 관념이 ‘태양-남성’의 일반적인 상징을 뛰어넘어 <연오랑세오녀>와 <해와 달> 설화에도 공통되게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창세가>, <해와 달>, <연오랑세오녀>를 관련지어 읽을만한 개연성이 발생한다.

27) 이지영, 앞의 글, 2008, 200면.

28) 이에 대해 조현설은 남성 중심 사회로의 변동이 태양의 성을 남성화했으리라고 해석하고, <해와 달>의 누이는 달의 지위를 거부하고 해가 됨으로써 남성 태양신 체계 이전의 세계상으로 복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해와 달>의 창조신화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125~126면.

3.2. 서사 간 대립 관계의 설정과 확인

서대석은 <창세가>와 <해와 달>을 대상으로 하여, 공간의 성격 및 인물의 이동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이 두 서사가 대칭적 관계에 놓여 있음을 논의한 바 있다. 신화는 하늘에서 땅으로 하강적 전개를 보이는 반면 민담은 땅에서부터 하늘로 향하는 상승적 전개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신화는 지상적 존재의 시원을 천상에 두고 있음을 민담에서는 천상적 존재의 시원이 지상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하며, 신화와 민담의 세계관적 위상의 대칭으로 확장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²⁹⁾

두 설화가 대칭적 관계에 있다는 주장은 인물의 이동 방향뿐만 아니라, 그 이동 수단을 근거로 삼아볼 수 있다. <창세가>에서 미륵은 자신의 크고 강인한 몸을 땅에 견고하게 세우고 하늘을 향해 인간을 바란다. 장차 인간이 될 벌레들은 미륵의 손에 들린 쟁반을 타고 땅으로 내려오게 된다. 거대한 거인신이 땅에 뿌리박힌 듯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는 땅에서 솟아오른 거대한 나무, 곧 우주목(宇宙木)³⁰⁾에 겹쳐진다. 인류가 지상에 도래하는 첫 순간에 미륵은 신성한 우주 나무로서 하늘과 지상을 잇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해와 달>에서 인물을 하늘까지 인계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앗줄, 혹은 박넝쿨이다. 이는 <단군신화>나 <천지왕본풀이>의 박넝쿨과 동일한 상징성을 가져, 하느님과 지상을 잇고 오누

29) 서대석, 앞의 글, 1989, 20면.

30) ‘우주(宇宙)나무’, 혹은 ‘세계(世界)나무’는 나무가 지닌 생명의 지속성과 갱생성이 우주의 능력과 동일시되어, 우주를 곧 거대한 나무의 형태에 비유하는 것을 말한다. 거대한 나무의 생산력과 생명력을 인정하고 숭배할 때, 나무는 신성한 나무로서 거듭나게 된다. 성스러운 나무로는 성스러운 나무로, 북유럽의 신 오딘(Odin)이 타고 하늘과 땅 사이를 내왕했다는 ‘이그드라실(Yggdrasil)’에서 시작해 시베리아 예벤키(Evenki)족의 ‘투루(Turu)’, 동북아세아의 만주족의 ‘투룬-모(Turun-mo)’, 일본의 ‘히모로기(Himorogi)’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북반구에서 범세계적인 분포를 보인다. 우리나라에는 <단군>신화의 신단수와 당산나무가 있다.

M. Eliade, *The Sacred and the Profane*,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144~145면.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203~205면.

이를 하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천지를 잇는 우주목의 변형이라는 것이다.³¹⁾ 그렇다면, <창세가>의 우주목은 땅에서 솟은 우주목의 전형으로서의 모양을 구현하며, <해와 달>은 하늘에서 땅을 향해 솟은 모양의 변형된 우주목을 구현하는 것으로, 두 서사의 대립적 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창세가>와 <해와 달>이 인간 남녀와 일월의 관련성을 말하되 인물의 이동 방향에서 분명한 대칭적 형상화를 보여준다고 할 때, 각각에 형상화되어 있는 인물의 존재적 특성은 어떠한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천상과 지상이라는 대립적 공간의 구현은 곧 등장인물의 신성(神性)과 속성(俗性)을 대변하는 것일 수 있는 까닭이다. <해와 달>의 오누이의 경우 서사의 대부분을 경험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해와 달이 되기 전 그들의 삶은 지극히 인간적인 속성을 드러낸다.

- ㉠ 정인섭: 옛날 옛날에 아들과 딸, 두 자식을 둔 나이든 여인이 살았다. 어느 날 그녀는 품을 팔러 이웃 마을 부잣집에 갔다. 그녀가 집에 돌아올 때, 메밀범벅이 담긴 함지박을 받았다. 그녀는 그것을 머리에 이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에게 서둘러 돌아왔다. (중략) 그녀의 집에서는 두 자식이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밤이 새기까지 기다렸다. 어머니가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자 그들은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들은 방바닥에 굶주린 채로 누웠지만 호랑이가 그들의 어머니를 돌아오는 길에 먹은 것을 알지 못했다.
- ㉡ 임석재: 옛날에 한 여자가 있는데 아들 딸을 데리고 사는디 집안 살림이 간구해스 남으 집이 가스 일두 하구 품도 팔구 해스 목고 사는디 하루는 즈으 든디 산 느므 동네 장자네 집이로 베를 매주로 갔다. 베를 다 매주고 즈늬때 올 즈에는 그 집이스 준 쑤시팔뚝을 한 동구리 이고 집이로 왔다. (후략)
- ㉢ 손진태: 옛날 어머니가 등넘어 어떤 장자 집에 방아품을 팔러 갔다가(혹은 딸네 집에 갔다가)묵(혹은 떡)을 얻어 가지고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31) 조현설, 앞의 글, 2007, 124면.

(중략) 범은 어머니의 옷을 입고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 집에는 세 아이가 공복을 쥐고 어미를 고대하였다.

제시된 인용문은 <해와 달>에서 홀어머니와 자녀들로 구성된 가정의 생활고가 드러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세 각편에 공통적으로 홀어머니가 품을 팔러 다니는 바를 서술하고 있다. ㉠의 어머니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두 자식을 위해 늦은 시각까지 일하다 먹을 것을 얻어 서둘러 돌아온다. 아이들은 그런 어머니를 기다리며 굶주린 채 누워 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누군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며, 그럼에도 상황이 썩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의 각편에서도 또한 남성은 등장하지 않고 여성 홀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산다고 서술한다. 집안이 가난하여 품을 팔아 산다고 하였다. ㉢의 각편에서도 또한 한 어머니가 있어 부잣집에 방아품을 팔러 갔다가 밤이 되어서야 배고픈 아이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렇듯, 세 각편에서 공통적으로 여성의 불안정한 노동을 말하고 있으며, 가난한 환경, 먹고 살아가는 일의 고난에 대해 형상화하고 있다. 고정적 수입원이 없는 가난한 가정에 품을 팔러 다니는 어머니는 간헐적으로 주어지는 일에 필연적으로 늦은 시간까지 노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안정한 삶은 개선되지 않고, 가족 구성원들의 굶주림은 순간만을 모면하며 지속될 뿐이다. 하늘에 올라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게 노동은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

- ㉠ 정인섭: 두 아이는 천국에서 평화롭게 살았으며 어느 날 천국 왕이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누구든 여기 앉아서 빈둥거리며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에게 임무를 주기로 결정했다. 소년은 태양이 되어 인간 세계에 빛을 보내고, 소녀는 달이 되어 밤을 빛나게 하라.”
- ㉡ 임석재: 아이들은 하늘에 올라가스 오래비는 해가 되고 누이동생은 달이 됐다. 그런데 달이 된 누이동생은 밤질을 맏기기가 무섭다 함스 낮

에 다니게 해달라고 했다. 그래스 오래비는 밤에 댕기기로 하고 달이 되고 누이는 낮에 댕기게 해가 되게 했다. 그런데 해가 된 누이동생은 사람들이 많이 그를 자꾸 츠다봐싸스 부끄르스 그를 못 보게 하니라고 온 몸에다 바늘을 뒤집어쫘다. 그러서 지금 우리 사람들이 해를 보문 눈을 바늘로 찌르는 곳츠름 눈이 신 곳은 그 까닭이라구 한다.

- ㉔ 손진태: 하느님은 두 형제를 불러다 놓고 “여기는 놀고 먹지는 못하는 곳이다. 형은 해가 되고 누이는 달이 되거라.” 명령하였다. 수일 간 직분을 하다가 누이는 형에게 말하였다. “밤에 혼자 다닐라니 무서워서 안 되겠습니다. 나하고 바꿉시다.” 형은 그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누이는 낮에 다니려 하니 여러 사람들이 쳐다 보아 부끄러우므로 강렬한 광선을 발하여 보는 사람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태양을 바로 쳐다 볼 수 없다고 한다.

남매는 해와 달이 되는데, ㉔의 인용문에서 보이듯 여기서 해와 달이 되는 일은 빈둥거리거나, 놀고 먹는 것의 반대편에 있는 일이다. 빈둥거리거나 놀기만 할 수 없는 곳이니 필연적으로 해와 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해와 달이 되는 일은 노동이 된다. 이는 남매가 선택한 바가 아니기에, 그 일이 즐겁지 않거나 쉽지 않다고 하여 쉽게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㉔에서 보이듯 달이 된 누이는 밤길이 무섭다. 무섭다는 부정적 감정을 까닭으로 노동을 그만둘 수는 없다. 따라서 오빠와 자리를 바꾸어 해가 된다.³²⁾ 해가 된 이후에도 사람들이 쳐다보기에 부끄러운 감정이 들지만, 이 또한 관둘 수 없으므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직분을 계속해 나간다. ㉔에서도 마찬가지로 달이 된 누이에게 달이 된 일로 인한 공포와 부끄러움 등의 마음이 들지만, 역시 남

32) 여기서 <해와 달>과 유사한 전개를 보여주는 세계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해와 달>에 남매 간의 성적 접촉의 흔적이 있으며, 남매 간 자리바꿈이 그를 의미한다는 조현설의 논의, “일식과 월식은 근친상간과 등가 관계라는 원칙”이라는 레비스트로스의 논의 등을 참고해볼 수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문면에 노출된 남매 관계라는 것만을 대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조현설, 앞의 글, 2007, 119면.

C. Levi-Strauss, 앞의 책, 544면.

매에게 해와 달의 일을 그만 둘 수 있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하늘에 올라간 남매에게 일월 되기란 즐겁고 기쁜 일, 혹은 신적인 영역의 일이라기보다는 싫어도 견디서 결국에는 해야만 하는 노동의 영역에 놓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의 <창세기>에서 빛, 공기, 물, 낮과 밤, 모든 생물과 인간을 차례로 만든 하나님은 일곱째가 되는 날 비로소 안식을 취했다. 이를 주말로 일컫고, 대대로 휴식을 취하는 날로 삼았다. <창세기>의 미륵은 석가가 마음을 풀이며 거짓잠을 잘 때, 온전한 참 잠을 이룸으로써, 그러면서도 꽃을 피워냄으로써 신으로서의 완벽함을 보인다. 이와 같이 휴식이 신의 특권 중 하나라고 한다면,³³⁾ <해와 달>의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노동은 이들이 결코 신이 아닌 인간의 영역에 속한 존재임을 보여준다. 이들은 설 수 없으며 끊임없이 노동해야만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 인간의 세계를 떠났다고 하여도 신이 된 것은 아니기에,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노동해야만 한다. <해와 달>의 등장인물은 신과 같은 여유가 주어진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해와 달>은 인간이라면 겪을 수 있는 가난, 배고픔, 노동, 그로 인한 고통 등 생활의 면면을 형상화함으로써 인간과 인간의 세계를 다루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반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간 남녀는 등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 세계의 범주를 넘어서 있다. 그들의 시작은 하늘에서부터이다. 하늘에서 해와 달의 정기로 존재하던 그들은 미륵의 소망과 하늘의 응함에 힘입어 벌레의 형상을 하고 지상으로 내려앉게 된다. 천상에서 지상으로의 이동은 최초의 신성성(神聖性)을 확보하는 보편적 자질³⁴⁾이라고 할 수 있다. 한

33) 신의 잠은, 휴식하면서도 창조를 가능하게 한다는 신의 위대함과 자면서 이루어지는 생명과 새로운 것들의 창조가 그 원리나 과정을 비밀스럽게 한다는 신화적 함의를 갖는다.

박중성,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548~549면.

34) 고조선의 시조에 관한 신화인 <단군(檀君)>등을 살펴보면, 천손(天孫)이 인간 세계로 강림하는 보편적인 형상을 보여준다.

국의 건국신화에서는 천손(天孫)이 인간 세계로 강림하는 보편적인 현상을 갖는 까닭 또한 신성성의 확보에 있을 것이다. 이와 같다면, <창세가>에서 인간 남녀가 될 벌레들의 지상으로의 하강은 그들의 신적 성질을 일정 정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들이 지상으로 내려와 미륵의 양육을 받으며 ‘사나회’와 ‘계집’으로 자라나게 된다. 벌레가 인간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벌레에서 인간으로의 성장이 경험 세계에서는 관찰 가능하거나 발생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이들의 변화는 의아하고 신비롭다. 더욱 흥미로운 지점은 이들의 부부된 결실(結實)이 곧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요컨대, 일월의 정기였다가 벌레였다가 인간의 외양을 갖추고 인류의 시조가 되는 등, <창세가>의 인간은 인간이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신적인 성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³⁵⁾

<창세가>의 인간 남녀가 <해와 달>의 남매와 대별되는 또 다른 지점은 생활과 감정에 대한 서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험 세계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벌레에서 인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은 않았을 것이고, 서로 다른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인류의 기원이 되기까지 갖은 어려움과 사건들이 있었으리라 짐작이 된다. 그러나 <창세가>에서 이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어느덧 벌레에서 인간이 되었고, 자연스레 부부가 되었으며 당연히 인류의 시조가 되는, 요약적이고 당위적인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굉장한 사건들 사이에 오래 있을 법한 시시콜콜한 인간의 생활 따위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인간으로의 성장 과정에서의 두려움이나 혼란스러움, 부부 관계에서의 즐거움이나 어려움, 아이를 갖는 과정에서의 고통이나 기쁨 등 인간을 인간답게 보이게 하는 있음직한 감정 또한 드러나지 않는다. 생활과 감정이 있으나 제거된 것인지, 본래부터 <창세가>의 인간들에게는 생활이나 감정 따위가 부재하는 것인지 알 수 없

오세정, 「<대홍수와 목도령>에 나타나는 창조신의 성격」,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86면.

35) 황윤정, 앞의 글, 2017, 140~141면.

으나, 분명한 것은 <창세가>의 관심이 인간의 생활이나 감정의 형상화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와 달>이 늙은 여인이 밤길에 호랑이를 마주했을 때의 공포, 보호자 없는 집에 공복(空腹)으로 누워 있는 남매, 호랑이의 침입에 대한 남매의 미숙한 대처, 치달아 오는 극단적인 두려움 등 인간의 남루한 삶과 감정들을 엿혀낸 이야기라면, <창세가>는 인간의 생활과 감정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신과 하늘, 인류의 시작과 같은 거대한 사건들에 대해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창세가>의 인간 남녀가 담지한 신적 자질은 그들의 이동 및 인류의 기원이 된다는 사건의 근거가 되는 반면, <해와 달>의 오누이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경험적 세계의 속성은 이 서사가 민담적 표현 방식을 떠나지 아니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해와 달>은 <창세가>와 대립의 관계에 놓여 있는 서사임을 말할 수 한다.

3.3. 매개 설화의 설정과 확인

<창세가>와 <해와 달>이 서사적인 대립 관계에 있다고 할 때, <연오랑세오녀>는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제8대 아달라왕 즉위 4년 정유(158)에 동해 바닷가에 연오랑과 세오녀가 부부로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연오가 바다에 가서 해조를 따고 있던 중, 갑자기 바위 하나 혹은 고기 한 마리라고도 한다. 가 연오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그 나랏사람들이 연오를 보고 말했다. “이는 비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왕으로 삼았다. (후략)

먼저, 인물의 이동을 살펴보면, 앞선 두 서사가 하강이나 상승의 수직적 움직임은 보인다고 할 때, <연오랑세오녀>의 인물들은 수평적 이동을 한다. 움직이는 돌이나 물고기를 타고 일본으로 이동해 갔다는 것이다. 지상

에서 바다를 건너 다른 곳으로 움직인 정황만이 드러날 뿐, 하늘이나 땅속으로 이동한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창세가>와 <해와 달>에서 수직적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던 우주목과 같은 이동 수단과 이동의 결과에서도 차이를 빚는다. <연오랑세오녀>에서는 수직적 방향으로 솟아나는 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바다 위의 움직이는 돌이 있어 연오랑이나 세오녀와 같은 특정 인물이 오르면 수평적인 이동을 하는 것이다. 돌로부터 인류나 특정 종족이 비롯되었다는 신화들을 환기할 때,³⁶⁾ <연오랑세오녀>의 움직이는 돌은 신라에서 일본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특정 종족의 시원(始原)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연오랑세오녀>를 역사적 사실로서 수용한다면, 5세기 무렵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계 이주민들이 있어, 하타씨(泰氏)라고 불리며, 지금의 교토 서쪽 우즈마 지역에서 세력가로 성장했다는 논의³⁷⁾를 참고할 만하다. 이주한 종족에 대한 이야기에 돌이 갖는 종족의 시원이라는 상징이 더해져 <연오랑세오녀>에 바다 위의 움직이는 돌로써 구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 돌을 타고 일본으로 이동해 간 연오와 세오는 신라에서는 해와 달의 정기로 일컬어지고, 일본에서는 왕과 왕비로 추대된다. 그러나 이들은 서사의 초반에는 필부필부(匹夫匹婦)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형상

36) 엘리야데는 돌에는 절대적 실재, 생명, 신성성의 의미가 있으며, 최초의 인간이 돌에서 출현했다는 모티프가 중앙 아메리카의 위대한 문명 뿐만 아니라 남아메리카의 몇몇 부족의 전승, 그리스인과 켈트족, 코카서스 산맥 지역,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오세아니아에 걸쳐 입증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기반하여 조현설은 나시족, 모소족의 돌 기원 신화에 대해 살펴 보는 것으로 모석에서의 인류 탄생과이나 특정 종족의 시작됨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E. Mircea, *Forgerons et alchimistes*,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1999, 46면.

조현설, 『동아시아의 돌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 『구비문학연구』 36, 한국구비학회, 2013, 13면.

37) 전수연, 『『삼국유사』 『연오랑세오녀』의 ‘도기야’』, 『열상고전연구』 63, 열상고전연구회, 2018, 221~222면.

화된다. 동해 바닷가의 평범한 부부로서 살아가며, 바다에서 해조를 따고 있었다고 하였다. 세오와 부부로 살고 있었다는 서술 뒤, 해조를 따는 행위의 별다른 목표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일은 인간의 생활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매우 평범한 일에 해당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의 <연오랑세오녀>에서 이와 같은 생활에 대한 형상화는 도무지 뚜렷하게 비추어지지 않는다. 저절로 움직이는 바위나 혹은 물고기와 같은 것이나, 도착한 곳에서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장면들이 그러하다. 하나같이 인물의 노동과 그로 인한 생활에 대한 형상화가 드러나 있지 않다. 경험 세계에 있어 바다를 건너기 위해서는 배를 띄워 노를 젓는 힘을 들인다던가, 또 다른 동력을 마련한다던가의 물리적 원리에 의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알 수 없는 힘으로 움직이는 바위가 바다를 건너게 해준다는 경험 세계의 범주를 넘어선 힘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노동은 소용될 곳이 없게 된다.

연오가 왕이 된 것 또한 <연오랑세오녀>에서 인간의 노동을 서술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논의하였듯, 신은 노동하지 않는다. 쉬는 것은 신의 특권이다. 왕(王)은 인간 가운데 가장 높은 자로 신과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왕은 신이 그러하듯, 노동하지 아니한다.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한 시연으로써의 행위는 있을 수 있어도 육체적 노동 그 자체를 몸소 행하는 왕은 없다. 즉, 연오가 왕이 된 것은 과거에는 해조를 따는 등의 일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그러한 일에서 벗어나게 되었음을, 더 이상 일하지 않는 인간으로 자리할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세오의 노동 또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그려진다.

연오는 말했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이니, 이제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그러나 나의 비가 짙 고운 명주 비단이 있으니, 이것으로써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될 거요” 이에 그 비단을 주었다. 사자가 돌아와서 아뢰었다. 그 말대로 제사를 지냈더니 해와 달이 그전과 같아졌다. 그 비단을 입

금의 창고에 간직하여 국보로 삼고 그 창고를 귀비고라 하며, 하늘에 제사지낸 곳을 영일현 또는 도기야라 했다.

세오의 주된 일은 비단을 짜는 일이다. 그런데 이 비단은 해와 달의 빛을 찾아줄 매개물으로써 작용한다. 신성하게 여겨진다는 것이다. 고운 명주 비단을 짜기까지 세오의 노력과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연오와 세오의 삶을 위해 팔아서 경제적 이득을 꾀한다거나 옷을 만들어 입는다거나 등의 실용적인 형태로 쓰이는 것이 아닌 제의를 위한 신성한 물건으로 여겨진다. 보편적인 인간이 생각하는 범주를 벗어난 방식으로 활용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장면은 <해와 달> 및 <창세가>의 인간 형상을 환기하게 한다. <해와 달>에서 오누이는 지상에서는 가난에 허덕였으며, 하늘에 오른 이후에도 노동으로써 일월의 직분을 행하게 된다. 지상에서나 하늘에서나 언제나 일한다는 것이다. 반면 <창세가>의 경우 인간의 노동에 대해서는 조금도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창세가>의 인간들은 언제나 신적인 특성을 내보이고, <해와 달>의 인간들은 언제나 인간적인 특성을 내보인다 할 수 있다. 이에 비할 때, <연오랑세오녀>는 서사의 초반에는 식재료를 구하는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다가, 서사의 중반부 이후에는 여전히 인간이되 인간적인 생활의 영위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인간을 그려내고 있다. 인간적인 인간에 대한 형상화를 <해와 달>에서 가장 뚜렷하게 찾아볼 수 있다면, <창세가>의 인간들은 그것과 가장 먼 거리에 있고, <연오랑세오녀>의 연오와 세오는 <해와 달>과 <창세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오랑세오녀>에서 인간의 감정을 서술하는 방식 또한 이 서사가 <창세가>와 <해와 달> 사이에 위치할 수 있는 서사임을 짐작하게 한다. <연오랑세오녀>에서 인간의 감정과 관련하여 서술하는 대목은 다음의 부분에 불과하다.

세오는 그 남편이 돌아오지 않음을 괴이히 여겨 가서 찾다가, 남편의 벗어놓은 신을 보고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는 또한 그 전처럼 세오를 신고 갔다. 그 나랏사람들이 보고 놀라서 왕께 아뢰니, 부부가 서로 만나게 되어 세오를 귀비로 삼았다.

세오는 갑자기 남편이 사라진 것에 대해 ‘괴이’하게 여겼다고 한 대목과, 세오가 일본 땅에 도착하여 그 나라의 사람들이 세오를 보고 ‘놀랐다’는 대목이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사라졌다면, 괴이함, 슬픔, 두려움 등의 폭발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세오는 ‘괴이함’을 느꼈다며, 비교적 담담한 서술을 보인다. 남편의 벗어놓은 신발이나 움직이는 바위를 마주했을 때 또한, 놀라움, 두려움, 기대감, 의아함 등을 느낄 법도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며, 남편의 움직임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매우 당연하게 바위에 올라타고 이동한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신라의 반응인데, 하루 아침에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에 대해 별다른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위가 움직이고, 사람이 그것을 타고 이동하고, 남편이 사라지고, 해와 달이 빛을 잃는 등 초월적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연오랑세오녀>의 인물들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을 보인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오랑세오녀> 관련 의 역사적 추론들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간헐적인 감정의 표출은 상당 부분 절제된 표현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5세기의 포항 지역에 대규모의 세력 집단이 존재했었다. 그런데 이 시기, 신라의 정복 전쟁이 지속되자 소국들이 독자적 정체성을 잃어 갔고 포항 지역에서도 위기감을 감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는 내물왕의 시대는 석씨에서 김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로 정치·사회적 불안이 극심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³⁸⁾ 이에 포항의

38) “‘아달라왕 때’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2세기, 8대 아달라왕 대를 가리킨다. 이 시기는 박씨에서 석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고, 5세기 17대 내물왕의 시대는 석씨에서 김씨로 왕권이 넘어간 시대이므로, 두 시대는 왕권이 바뀌었다는 공통점,

세력가이자 고도의 비단 직조술을 보유하고 있었던 예죽 일파는 일본으로의 집단 이주를 감행하였고, 일본에 정착하여 ‘하타씨’라고 불리며 자신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즈마사지역에서 세력가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서기』 응신천황 14-16년 조에 궁월군이 대규모의 무리를 이끌고 신라에서 일본에 도착했다는 기사 및 우즈마사 지역의 누에 신사 등이 이를 증거한다.³⁹⁾

이와 같은 연구에 비추어볼 때, 연오와 세오로 표상화된 사람들의 신라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바다를 건넌다는 부담스러운 성격의 이주를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불안과 고난에 가득 찬 삶이 있었을 것이고, 바다를 건너는 과정에서도 또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다쳤을 것이다. 또한 이주한 나라에의 정착 또한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연오랑세오녀>에는 신라에서 살아가기의 어려움에 대한 토로라던가, 이주의 고통, 일본 정착의 어려움 등의 사건이나 감정들은 전혀 서술되어 있지 않다. 대신 ‘어느 날’, ‘갑자기’ 연오가 바위를 타고 이동했다거나, ‘그래서’ 왕이 되었다며, 매우 요약적이고, 마술적이며, 순조로운 전개로 이야기로 제시되어 있다. ‘어느 날’, ‘갑자기’ 타국(他國)으로의 이주가 결정되는 것은 경험 세계에 있어서는 매우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그래서’ 성공적으로 타국에 정착하게 되는 일은 더욱 어렵고 드문 일이라 할 수 있다.

곧, <연오랑세오녀>에는 일상성과 초월성이 공존하고 있다. 살펴보았듯, <창세가>에서는 초월적 사건의 연속임에도 인간들의 감정, 삶의 다사다난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읽어내기 어려웠다. 반면, <해와 달>에서는 인간사의 연속이며, 그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들이 예상하지 못

그리하여 불안한 시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일본 이주의 시기로 설정된 ‘아달라왕 때’라는 표현의 함의는 정치사회적인 불안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불안감은 ‘일식’이라는 하늘의 변고로 상징화되었다.”

전수연, 위의 글, 222면.

39) 위의 글, 222~223면.

한 순간에도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그런가 하면, <연오랑세오녀>에서는 초월적인 사건의 연속에도 정제된 수준의 감정이 간헐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나아가, <창세가>의 인간 남녀의 이동이 인류의 시작이 된다는 시원성을 가지고 있다면, <해와 달>의 오누이의 이동은 공포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지상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쪽은 인류의 시작에 맞닿아 있고, 한쪽은 인간의 종결에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연오랑세오녀>의 경우 연오와 세오의 이동은 신라에서 사는 일의 종결이라면, 일본에서 사는 일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종합컨대, <창세가>와 <해와 달>이 인간의 생활이나 감정 등 인간의 고유한 특성에 대해 다루는 방식에 대하여 <연오랑세오녀>는 양쪽의 서술 방식을 고루 취하면서 중간적인 입장을 견지한 서사물이라 할 수 있다.

4. 설화 간 관계 설정에 의한 교육의 실제

4.1. 공통적 요소 기반의 가설적 관계의 설정

서사 간 관계를 설정하여 설화를 읽는 방법으로 브루너(Jerome S. Bruner)가 주장한 탐구 학습(探究學習)⁴⁰을 제안하고자 한다. 탐구 학습은 지식의 구조 자체를 가르치는 원리로, 어떠한 학습의 영역에 대하여, 그것의 ‘토픽(topic)’이 아닌, 하나의 ‘사고방식’, ‘지식을 처치할 수 있는 장치’를 가르치자는 요지이다. 따라서 설화가 있다고 할 때, 하나의 특정 작품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know about)’ 지식 하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40) 이홍우,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1988, 36~37면.

자가 그 설화를 ‘다룰 수 있는 방법(know how to)’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습자는 그 영역의 ‘관람자’가 아니라, ‘참여자’가 될 수 있다.⁴¹⁾

서사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은 여러 설화를 조회하여 이야기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고, 그에 기대어 이야기를 비교하는 학습 과정을 통해 하나의 설화에 대한 이해가 아닌 특정 설화군이나, 어떠한 요소를 담지하고 있는 여러 설화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설화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상호 공통적인 요소나 전개를 갖는 독특한 서사 갈래이다. 따라서 공통성에 근거하여 여러 설화 간의 가설적 관계를 마련한 뒤 읽는 방법은 다양한 설화를 효율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논의한 바,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이라는 공통적 요소를 갖는 설화들을 환기하여, 서사 간 관련성을 탐색하는 작업이므로, 이것은 하나의 설화에 한정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을 이야기 요소로 가지고 있는 모든 설화에 대한 이해를 목표로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설화’, 즉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은 공통적인 이야기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변형을 거듭하여 개성적인 이야기로 전개해 나간다는 설화라는 장르 자체에 대한 이해 또한 목표로 둘 수 있다.

이와 같은 탐구 학습의 절차는 ‘문제의 정의’, ‘가설의 설정’, ‘가설의 검증’, ‘결론의 진술’로 이루어진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절차 가운데, 실질적인 교육 활동으로서 가설의 설정과 가설의 검증에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학습자는 서사에 이미 명징하게 드러나 있는 바를 주의 깊게 읽어 설화 간 가설적인 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다. 가설을 세우는 것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특정 종류의 증거로써 탐구를 인도하므로 학습을 효과적으로 만들며,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학습의 한계를 설정한다. 가설을 세우는 것은 탐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다.⁴²⁾

41) 위의 책, 37~38면.

42) B. K. Beyer, *Teaching thinking in social studies*, 한면희 외 공역, 『사회과 탐구논리』,

살펴보았듯, <창세가>의 인간 남녀와 일월의 관련성은 서사의 문면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해와 달>이나 <연오랑세오녀>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관계지어 읽는 과정을 통해 각 서사에 인간 남녀라는 공통적인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서사의 차이를 가늠해볼 해석적 거점을 얻게 된다. 따라서 학습자가 <창세가>, <해와 달>, <연오랑세오녀>를 두루 조회하고,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성’이라는 공통적인 이야기 요소를 갖는다는 사실을 증거로 하여, 이로써 세 서사가 어떠한 관계에 놓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가설의 설정을 통해 세 설화를 중심으로 한 공통점의 확인과 차이점의 비교라는 학습 내용의 경계를 두어, 교육 내용의 비효율적인 확장 또한 방지할 수 있다.

어떠한 이야기들이 서로 관계를 가진다는 가설을 설정하는 것은 그 관계의 성격을 또한 가정하는 것이 된다. 아주 유사한 관계에 있다거나,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는 등 관계의 구체적인 성격을 떠올려볼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에 세 서사의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세 서사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성에 의해서이다. 이와 같다면 명징하게 드러난 것을 기반으로 하여 학습자는 설화를 보다 촘촘히 읽어내는 방식으로 각각의 서사가 갖는 특성 및 그로 인한 서사 간의 관계를 설정해볼 수 있다. 인간이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하는 <창세가>와 인간이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는 <해와 달> 사이, 그 서사가 서로 반대되는 관계에 있다는 가설적 관계의 설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인간의 이동 방향이 수평적인 모양새를 보이는 <연오랑과 세오녀>에 대해서는 <창세가>와 <해와 달>이 상호 간 점하고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에 일단의 배치를 해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설정 및 서사의 위치에 대한 가설적 설정을 통해 이후,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을 갖는 세 서사의 범주 안에서 서로 같고 다른 점, 곧 한 서사에는 드러났으나 다른 서사에는 드러나지 않은 점들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

4.2. 가설의 검증을 통한 체계적 읽기

앞선 과정을 통해 설화 간 가설적 성격의 관계를 설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관계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검증하는 활동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검증은 서사 간의 비교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일컬어 가설에 의한 추론적 읽기라 할 수 있다. 이는 ‘가추법(abduction)’으로 일컬을 수 있는데, 어떠한 사실로부터 전체를 추론하여, 드러난 사실로부터 드러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개연성 있는 가설’을 설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연역법이 일반 전체로부터 특수 사실을 판단하고, 귀납법이 특수 사실들을 종합하여 규칙을 정립한다면, 가추법은 특수 사실을 보고 전체를 선택하여 사례를 추론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⁴³⁾

본고의 논의와 같이 세 서사가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성을 말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발견을 한 뒤, 이 발견에 기반하여 이 세사가 서로 어떠한 관계를 갖는다는 가설을 세운 바 있다. 이제 이러한 잠정적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으로, 형성한 가설로부터 세 서사의 문면에 미처 드러나지 않은 사실들을 읽어내는 것으로, 앞서 형성한 가설을 검증해낼 수 있

43) 본고에서 가추법으로 표상한 탐구학습은 문법교육에서는 많이 활용되었으나, 문학교육에서는 그보다 활용된 사례가 적다. 문학교육에서는 오세정이 설화교육에 있어서 가추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최인자는 서사교육에서 학습자의 스토리 창작에서 가추법의 활용에 대해 말한 바 있다. 황윤정은 설화 교육에서 탐구활동을 통해 학습자 주도적이고, 정밀한 읽기가 가능해진다는 논의를 개진한 바 있다. 오세정, 『설화교육 연구의 경향 검토와 방향 모색』,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63~88면; 최인자,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2004, 472~498면; 황윤정, 앞의 글, 2017.

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각각의 서사에서 노동과 감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났는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창세가>에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이나 감정이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반면, <해와 달>에서는 인간의 비루한 삶과 그러한 삶을 벗어나기 위한 노동이 꺾진하게 서술되어 있었다. 또한 두려움, 공포, 고단함, 미워함 등의 감정 또한 가감없이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창세가>와 <해와 달>은 기존의 논의에서도 제안되었듯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서사임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잠정적 상태에 있던 가설을 검증할 수 있었다.

나아가 주목할 만한 점은 <연오랑세오녀>의 위치였는데, 이동 방향에 있어서 수직 운동을 보인 다른 서사들과 달리 <연오랑세오녀>의 인물들은 지상 위에서 수평적 성격의 이동만을 보인 것에서 <창세가>와 <해와 달>의 가운데 놓일 수 있겠다는 잠정적인 수준의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에 나아가 인간의 노동과 감정에 대한 서술을 다른 두 편의 서사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게 살펴본 결과, 연오와 세오의 노동은 서사 초반에 서술하는 것으로 국한되어 있었으며, 놀라운 사건의 연속에도 인간이 가질 법한 감정에 대한 서술이 빈번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삶과 실제에 대한 서술은 <창세가>보다는 드러나 있었지만 <해와 달>에 비해서는 구체성이 떨어졌다. 이에 <연오랑세오녀>는 <창세가>와 <해와 달>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서사임을 말해볼 수 있었다.

논의를 통한 검증의 결과는 다시 세 서사의 갈래적 성격으로 회귀하여 재차 검증해 볼 수 있다. 서대석의 논의대로 <창세가>는 ‘신화’로 공동체의 통치 이념과 관련되어 있다. 반면, <해와 달>은 ‘민담’으로 서민들의 삶의 이상이 소박한 형태로 투영된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신화적 세계관이 하늘을 주로 하고 지상의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면, 민담은 이것에 역행하여 인간을 중심으로 현실계인 지상을 주로 하고 하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형성했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⁴⁴⁾ <창세가>와 <해와 달>이 각각 신

화와 민담의 갈래에 속하는 까닭에 명징한 대립을 말할 수 있다면, <연오랑세오녀>의 경우, 신화적 세계관의 전설적인 전환을 보여주는 설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화적 서사 원리와 전설적 역사성을 공유하기에 한편으로는 신성하고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된다.⁴⁵⁾ 즉, <연오랑세오녀>는 지금, 여기에서 완전히 신화인 것도, 완전히 전설인 것도 아닌 이야기이기에, 설화 간 관계를 마련하여 읽고자 할 때, 신화인 <창세가>와 민담인 <해와 달> 사이의 어느 지점에 배치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으로부터 세 서사의 관계를 잠정적으로 설정한 읽기는 각각의 서사에서 드러난 바와 드러나지 않은 바를 비교하는 방식을 통하여 <창세가>와 <해와 달>이 대립적 지점에 있음을 확인하고, 그 사이에 <연오랑세오녀>를 배치하여 읽을 수 있음을 또한 확인하였다. 잠정적인 형태였던 가설을 드러나지 않은 바를 면밀히 비교하는 방식 및 각각의 갈래적 성격의 환기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본고는 <창세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연오랑세오녀>가 전혀 상이한 설화군에 속하는 설화들임에도 공통적으로 ‘일월과 인간 남녀의 관련성’을 다룬다는 점에 주목하여, 세 설화의 관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살펴본 바, 이동 방향과 방식, 인간 고유의 특성을 서술하는 방식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창세가>와 <해와 달>은 대립적인 관계에 놓아 읽을 수 있는 서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연오랑세오녀>는 이 두 서사 사이에

44) 서대석, 앞의 글, 1989, 25면.

45)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124면.

위치하여 읽을 때 보다 풍요로운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이러한 서사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설화를 읽는 방법으로는 탐구 학습을 제안하였다. 학습자로 하여금 텍스트로부터 ‘스스로 탐구하고 발견하는 눈’을 기르게 하여 설화 연구자 수준의 안목을 갖게 하고, 이로써 학습한 설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설화에 대한 자발적 접근 및 의미의 탐구가 가능하게 되는 까닭이다. 곧, 학습자의 자발적 탐구를 유발하는 교육 제재로서의 설화의 가치 및 여러 설화의 서사 체계에 기댄 해석의 생산성과 정교함을 말하였다고 할 수 있다.

서사 간 관계를 중심으로 설화에 접근하는 것은 설화에 대한 단편적이고 독립적인 작품으로서의 이해에서 벗어나 보다 높은 위치에서 설화 간의 관계를 조망하여 더 풍부하고 다양한 이해를 지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습자가 설화를 독립적인 작품으로 접근할 때에 감상이나 해석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설화는 학습자의 현재적 경험 세계에 부합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 소위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보이기 쉽다. 이러한 지점은 교육에 있어 설화에 대한 접근을 배제하게 하고 혹은 그 이해를 어렵게 하는데, 설화 간 관계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설화 간 관계의 설정과 비교를 통해 학습자가 설화 이해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나아가 학습자 스스로 관계의 망을 만들며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에 능동적인 학습 주체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하나의 작품에 대한 교육이 아닌 다양한 작품에 대한 교육이 된다는 점, 즉 설화 교육의 범위와 지평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국내의 설화를 활용하여 설화의 체계를 그려보고자 한 시발적 성격의 논의를 진행했다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말해볼 수 있다. 그러나 다룬 자료가 많지 않아 설화의 서사 체계나 서사 지도를 말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설화를 망라하고 교육과 학습을 위한 서사의 관계망을 촘촘히 그려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월

의 발생'과 관련하여, 일월의 최초 창조와 과잉된 발생의 제거를 다룬 설화들을 대립적인 관계로 두고, <연오랑세오녀>와 같이 빛을 잃었던 일월이 그를 회복하는 서사의 위치를 서사 체계 내에서 탐색하는 연구가 있을 수 있다. 곧, 본고에서 논의한 관계의 설정에 의한 설화 이해라는 것은 전승적이거나 선형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 설화 해석의 정밀함과 풍요로움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써, 연구 대상과 해석의 규모 있는 확장을 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를 기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등학 외, 『한국 구비문학의 이해』, 월인, 2000.
-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신앙사전(마을신앙)』, 국립민속박물관, 2010.
- 김현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박종성,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 35, 비교민속학회, 2008, 541~572면.
- 서대석, 「한국 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1989, 5~26면.
- 서대석, 「<일월노리푸념>의 신화적 성격」, 『구비문학연구』 31, 한국구비문학회, 2010, 299~342면.
- 오세정, 「<대홍수와 목도령>에 나타나는 창조신의 성격」, 『한국고전연구』 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271~303면.
- 오세정, 「설화교육 연구의 경향 검토와 방향 모색」, 『청람어문교육』 55, 청람어문교육학회, 2015, 63~88면.
-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71~215면.
- 이흥우, 『지식의 구조』, 교육과학사, 1988.
- 일 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 1, 도서출판 숲, 2002.
- 전수연, 『삼국유사』 「연오랑세오녀」의 ‘도기야」, 『열상고전연구』 63, 열상고전연구회, 2018, 195~226면.
- 정운채, 「자기서사진단검사도구의 문항설정」, 『고전문학과 교육』 17,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25~160면.
- 정운채, 「<여우구슬>과 <지네각시>주변의 서사지도」, 『문학치료연구』 13, 한국문학치료학회, 2009, 327~362면.
- 조동일, 『삼국시대 설화의 뜻풀이』, 집문당, 2004.
-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2007, 107~130면.
- 조현설, 「동아시아의 둘 신화와 여신 서사의 변형」, 『구비문학연구』 36, 한국구비문학회, 2013, 119~150면.
- 조희웅, 『한국설화의 유형』, 일조각, 1983.

- 최래옥, 『한국 구비전설의 연구: 그 변이와 분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1.
- 최인자, 『‘모티프’ 중심의 서사적 사고력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2004, 472~498면.
- 황윤정, 『신화소 중심의 설화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Beyer, B. K., *Teaching thinking in social studies*, 한면희 외 공역, 『사회과 탐구논리』, 교육과학사, 1988.
- Dundes, A., “Structural Typology in North American Indian Folktales”, 진경환 역, 『북미 인디언 민담의 구조적 유형학』, 『한성어문학』 17,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98.
- Eliade, M., *The Sacred and the Profane*,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 Eliade, M., *Forgerons et alchimistes*, 이재실 역, 『대장장이와 연금술사』, 문학동네, 1999.
- Levi-Strauss, C., “La structure des mythes”, *Anthropologie structurale*, 김진옥 역, 『신화의 구조』, 『구조인류학』, 종로서적, 1987.
- Levi-Strauss, C., *Mythologiques*, 임봉길 역, 『신화학』 1-2, 한길사, 2006.
- Wiseman, B., *Introducing Lévi-Strauss*, 박지숙 역, 『레비스트로스』, 김영사, 2008.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 to Understand Folklore Focusing on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s

**- Focused on ‘Changse-ga’,
‘the Sun sister & the Moon brother’, ‘Yeon-oh and Seo-oh’ -**

Hwang, Yun-Jeong

This study discussed contents and method of understanding the narrative by grasping the narrative relation between narratives, focusing on the common points of different narratives. To this end, the folktales at the conflicting points of the tales were called “conflicting folktales”. It is also called “mediated narrative” that can be placed between opposing narratives, and the terms are considered theoretically. In order to apply the established concept to domestic narratives, we set the material of ‘relationship between January and man and woman’ As a tentative hypothesis, I saw ‘Changse-ga’ as a tale of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as the ‘Sun and Moon’. I watched ‘Yeon-oh and Seo-oh’ as a mediating narrative lying between the two preceding tales. It can be said that ‘Changse-ga’ and ‘Sun and Moon’ can be read in a confrontational relationship based on the direction of movement, the way, and the way of describing the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Also, ‘Yeon-oh and Seo-oh’ is located between these two narratives and can read richer meaning than reading. W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narratives and suggested inquiry learning through this method. It is because the activity to compare the various texts enables the learner to develop ‘the eye to explore

and discover for himself, and to be able to voluntarily approach and interpret the narrative. This study is educationally meaningful to extend the range and horizon of folktale education in order to understand folktales through the relationship between folktales. In addition, it is meaningful to have made a preliminary discussion of drawing the system of narrative with domestic folktales.

⊕ Key Words

relationship between narratives, conflicting folktales, mediated narrative, inquiry learning, literature education, understanding folktale